

특허청, 「한국의 특허 동향」 발간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특허출원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한 '83년부터 '01년까지 18년 동안 공개된 677,835건(일부 미공개 건수는 제외)을 대상으로 통계를 분석한 「한국의 특허 동향」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특허를 내·외국으로 구분할 경우 내국인 출원건수는 전체 특허의 60.6%인 410,862건을 점유하고 있고, 이들 내국인 특허 410,862건을 연구 주체별로 구분하여 보면 기업이 81.5%인 334,672건, 공공기관이 3.0%인 12,147건, 대학(교수 개인 명의의 출원은 제외)이 0.4%인 1,820건, 그리고 개인 등이 15.1%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주체 중 최근 기초기술과 공공기술 개발의 주체로서 주목받고 있는 공공기관과 대학의 특허분포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특허 12,147건 중 90.7%인 11,017건을 정부출연연구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소 특허 11,017건 중에서 1건 이상 특허출원한 연구소는 18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의 경우, 지난 18년 동안 1개 이상 특허를 출원한 대학은 68개 대학으로 조사되었다.

□ ETRI, 정부출연 연구소 특허의 62.8% 차지

이 기간 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소 특허의 62.8%인 6,780건을 차지하였고, 다특허출원 정부출연연구소 기관 순위를 보면, 2위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1,699건(15.4%), 3위가 한국화학연구원으로 956건(8.7%), 4위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381건(3.5%), 5위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48건(2.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이들 상위 5개 다특허출원 연구소가 정부출연연구소 특허의 92.7%를 차지하여 정부출연연구소간 특허활동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특허청은 연구기관의 특허역량을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함과 아울러, 특허정보분석을 통한 국가기술예측, 글로벌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와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KAIST, 대학 특허의 58.4% 점유

같은 기간 한국과학기술원은 1,062건을 특허출원하여 대학 특허의 58.4%를 차지하였다. 다특허출원 대학의 순위를 보면 2위인 포항공과대학은 1위와의 격차가 800여건인 261건으로 대학 특허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3위와 4위는 각각 광주과학기술원과 서울대학교이며, 건수는 91건과 76건, 대학 특허 점유율은 5.0%와 4.2%로 조사되었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개원 년도가 95년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모의 특허출원 건수는 다른 대학과 비교하면 매우 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위는 인하대학교가 53건을 출원하여 대학 특허의 2.9%를 차지하였다. 이들 상위 5개 다특허출원 대학 특허 점유율은 84.8%이며 정부출연연구소와 유사하게 대학간 특허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대학의 특허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특허청은 “대학내 기술이전센터” 설립, “적무발명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특허활동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고서의 제공 및 향후 계획

이 보고서는 3월 17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PDF화일 형태로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CD와 책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서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허청은 산업계 및 연구소 등에게 국가 전반에 걸친 기술경쟁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기술전략 및 국가 연구개발정책 등에 활용하게 할 방침을 수립 중에 있다.

〈특허청 보도자료 중에서〉